



2025  
VOL.01

# 지식공유 브리프



## 개발협력/지식공유 이슈톡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금융의 역할



지속가능교통을 위한 저탄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개발협력/지식공유 동향 분석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사업(PPP)



2025년 세계건설시장 유망 섹터 전망 및 시사점



## KSP 포커스

튀르키예: 수입대체산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페루: 모든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 CID 연구포커스

개발도상국 개발금융 역량강화체계화 및 지식공유 고도화 방안



## 소식

온두라스 출장소회 서면 인터뷰



## 행사

KDI-ADBI 공동 글로벌포럼:

글로벌 공급망과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금융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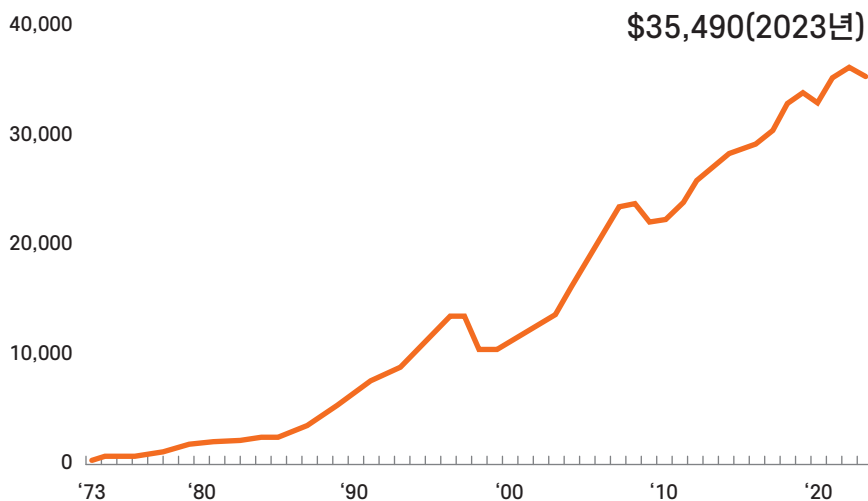


前 금융위원장  
(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  
**고 승 범**  
sbkoh1109@gmail.com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이룩한 경제발전 성과는 경이롭다.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18년 1인당 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 소위 30-50클럽 국가가 되었다. 30-50클럽은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대국으로서 1인당 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나라를 지칭한다. 과거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이었었는데 우리나라가 7번째

국가가 된 것이다. 우리 앞의 6개국은 20세기 초반 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식민제국들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들 국가는 두 편으로 나뉘어 전쟁을 하였고, 이 기간중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는지 알 수 있다(그림 1).

[그림] 한국 1인당 GNI 추이(\$)



자료: World Bank



이와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집중지원정책, 효율적인 관료 시스템, 우리 국민의 근면성과 높은 교육열로 인한 양질의 인적자본, 기업가 정신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적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리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하였을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정부가 추진한 불균형 성장전략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수출산업 육성정책, 그리고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등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의 주요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켰다.

현재도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이들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부터 우리나라 금융부문은 정부가 육성하기로 한 산업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민간 금융기관들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도 컸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 우리 정부는 정책금융을 통한 신용할당, 이자율 통제와 같은 금융억압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도왔던 것이다.

이는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금융억압정책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했다. 1950년대 케인지언 경제학자인 조안 로빈슨은 실물 부분이 중요하고 금융은 실물경제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기업들이 경제성장을 앞서서 이끌고 금융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로 유명한 루카스는 고전파적 이분법 시각에 기초하여 금융과 실물이 서로 떨어져 있으며 금융이 실물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 말부터는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골드스미스, 맥키논, 쇼 등은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맥키논과 쇼는 정부의 이자율 통제나 신용할당과 같은 금융억압정책 (Financial Repression Policy)이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강조하였다.

1980년대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이 발전하면서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금융발전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론에 바탕을 둔 계량 분석 결과들은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간의 긍정적 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킹과 레빈(1993)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여러 계량 분석에서 금융발전의 대리변수로 GDP대비 총유동성 비율 등 유동성지표를 활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금융이 발전하면 금융중개기능이 활성화 되고 유동성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유동성 증가를 금융발전의 대리변수로 활용하면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에 양(+)의 긍정적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 관계가 도출될 수 있음을 분석한 연구도 많았다. 1980년대 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시장 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금융시장 개방으로 크게 유입되었던 해외자본이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급속히 유출되며 외채위기를 겪었다. 이에 따라 금융억압정책과 결별하고 금융발전을 도모하려다 금융붕괴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이자율 규제, 신용할당, 정부의 시중은행 소유 등 금융억압정책을 시행하였는데, 맥키논 등의 이론과는 달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성장 초기의 개도국에서 금융억압정책과 경제성장간에 긍정적 관계가 발견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산업,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낮은 금리의 정책금융 제공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일부 외국 경제학자는 “한국의 경험은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것이 없었다면 한국의 산업정책과 경제성장의 성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금융산업의 발전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경제

발전과정에서 금융억압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의 경제로 발전하면서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과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또한 산업정책적 측면 예에서도 정부가 산업의 육성을 이끌어 나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하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 독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주요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들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최근 들어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금융산업의 발전과 효율화를 추구하는 가운데에서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각국의 산업지원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70년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도체, AI 등 미래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적 금융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



## 지속가능교통을 위한 저탄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강 성 철

jsc.kang@kdi.re.kr

### 지속가능교통

1987년 UN에서 출판된 Brundtland Report라고도 일컬어지는 Our Common Future에서는 지속가능개발을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개발”로 정의하였다.<sup>1)</sup> 이 정의를 교통 분야에 적용하여 지속가능교통의 개념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정의를 조금 구체화한다면 “전통적인 교통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교통 혼잡을 줄이며, 접근성과 이동성을 개선하고, 경제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하며, 교통 안전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통”을 지속가능교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지속가능교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면 토지이용계획부터 저탄소 차량으로 전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시적 또는 미시적 전략과 정책이 요구된다. 이 중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는 투자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도입하는 교통 시스템이다. BRT는 기존 버스 운송 체계의 단점을 개선하여 개인

차량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활성화하고자 고안된 개념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BRT는 버스에 기반을 둔 교통 시스템이다. 운행 속도를 높이하고자 BRT 버스는 일반 차량과 분리된 전용 차선을 이용하며 교차로에서 우선 신호가 주어지기도 한다. 기존 버스보다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하도록 용량이 큰 굴절 버스를 주로 사용하며, 승객의 승하차 시간을 단축하기위해 승차표를 미리 구입해야 하는 폐쇄형 정류장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림 1]은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브라질 Curitiba의 BRT 모습이다.

[그림 1] 브라질 Curitiba의 BRT



자료: Global BRT Data.

1 United Nations. 1987. *Our Common Future*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BRT의 장점은 일반 버스보다 많은 승객을 빠르고 편리하며 신뢰성 있게 수송할 수 있고, 지하철 등 철로 기반 시스템보다 건설 시간 및 비용이 단축되고 저렴하다는 것이다. BRT 용량, 건설 비용 등의 특성은 나라마다 다른데 <표 1>은 영국의 경우 BRT를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비교한 결과이다.<sup>2)</sup>

<표 1> 대중교통 수단별 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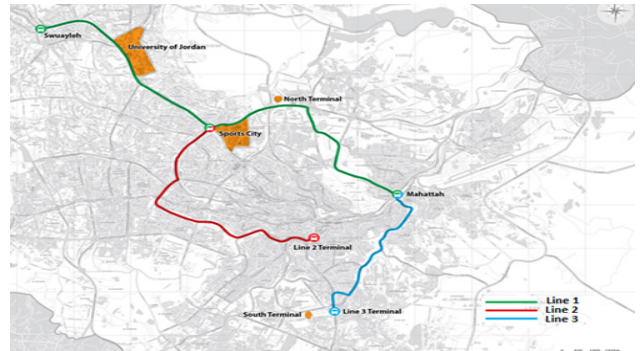
	용량 (PPHPD <sup>3)</sup> )	건설 비용/km (백만 GBP)	평균 속도 (km/h)	운영 신뢰도
버스	2,500	< 1	10 - 14	낮음
BRT	6,000	1 - 20	15 - 22	높음
트램	12,000	10 - 20	15 - 22	중간 또는 높음
경전철	18,000	15 - 45	18 - 40	높음
중전철	30,000	100 - 250	18 - 40	아주 높음

## BRT의 저탄소화

현재 운영 중인 대다수 BRT는 디젤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다수의 승객이 차량에 탑승하기 때문에 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개인 차량보다 적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교통 분야에도 온실가스 저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BRT의 저탄소화도 필요하다. BRT의 저탄소화는 BRT 차량의 전기화(electrification)로 이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참여한 요르단 암만 BRT의 연구 사례<sup>4)</sup>를 소개하고자 한다.

요르단 암만시 정부는 시민에게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림 2]와 같은 BRT 노선을 계획하였고, BRT 차량으로 디젤 18미터 굴절 버스 150대가 제안되었다.

[그림 2] 요르단 암만 BRT 노선 계획



출처: Imam R, Knag and Quezda(2020)

필자의 연구팀은 암만 BRT를 좀 더 친환경으로 만들고자 디젤 버스 대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스, 트롤리(trolley) 버스, 오퍼튜니티 차징(opportunity charging) 버스, 배터리 전기 버스 등 전기를 이용하는 저탄소 BRT 차량을 대안으로 고려하였다. (오퍼튜니티 차징 버스는 배터리 전기 버스와 비슷하나 특정 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 시 배터리를 급속 충전하는 방식의 버스이다.) 이 경우 차량 구입 비용이 증가하지만 연료 비용이 감소하며, 또한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 물질 감소로 인한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3] 저탄소 BRT 버스



주: 트롤리버스(왼), 오퍼튜니티 차징 버스(오), 배터리 전기버스(아래)  
출처: Imam R, Knag and Quezda(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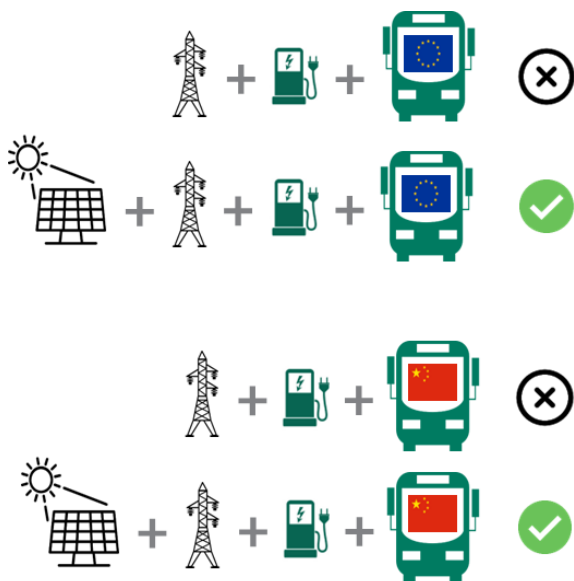
2 House of Commons Transport Committee. 2005. *Integrated Transport: The Future of Light Rail and Modern Trams in the United Kingdom*.

3 Passengers per hour per direction

4 Imam, R., Kang, S.-C., and Quezada, D. 2020. Exploring Low-Carbon Bus Options for Urban BRT Systems: The Case of Amman. *Journal of Public Transportation*, 22(1), 57-75.

각 대안에 대한 디젤 버스 대비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오퍼튜니티 차징 버스의 경제적 내부수익률(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요르단의 사회적 할인율보다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BRT 버스 전기화의 가능성은 보여주었다. 이후 암만시 관계자는 기술적 이유 등으로 오퍼튜니티 차징 버스보다 배터리 전기 버스를 사용할 때의 충전 방식 등 세부 분석을 요청하였다. 이 세부 분석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 생산 차량을 추가로 고려하였고 전기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방식도 고려하였다. 배터리 전기 버스의 충전 방식은 차고지에서 밤 사이에 완속으로 충전하고, 노선 운행을 마친 버스가 터미널에서 다음 운행 전 잠시 주차할 때 급속 충전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전력망(grid) 전기를 사용하면 배터리 전기 버스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단가가 상당히 감소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 요르단 암만 배터리 전기 버스 BRT의 경제성 분석 결과



## ● 맺음말

BRT는 지속가능교통을 추구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특히 경전철이나 중전철 같은 철로 기반 대중교통 수단을 건설하기에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는 더 적합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일 것이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브라질 Curitiba의 BRT 같은 전통적인 BRT 대신 서울이나 세종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카드를 이용하는 간이 BRT(BRT-Lite)를 도입하면 투자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승용차 분야에서는 정부 정책 및 가격 경쟁력 개선 등으로 전기차로 전환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BRT 차량도 화석 연료 버스에서 전기 버스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및 대기 오염 물질 저감에 기여하게 된다. 전기 버스는 전기 승용차보다 용량이 큰 배터리가 필요하고 충전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 등 버스 사양을 충전 방식과 결부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 가능한 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실질적인 무탄소 교통 수단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교통을 실현하려면 통행 거리나 수요를 줄이는 회피(avoid) 전략, 개인 차량 이용을 대중교통이나 비동력(non-motorized) 통행 수단으로 유도하는 전환(shift) 전략, 차량 기술과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개선(improve) 전략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저탄소 BRT는 전환 및 개선 전략에 속하는 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타 대중교통 수단 대비 비용 효율적 특성으로 그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사업(PPP)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구 석 모  
smku@kdi.re.kr

## ● 국제개발협력과 PPP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정부 예산 중심인 개발협력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수원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증대하려는 것이다.

개도국의 민관협력사업(PPP)에 참여하여 수원국을 지원하는 방식은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PPP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기반시설을 개발하는 장기 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서 ODA와 PPP 사업 간의 연계를 강조했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영하는 한국수출입은행 또한 개도국의 PPP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PPP

PPP는 UN의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PPP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친환경 에너지 개발,

빈곤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PPP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이 같은 추이를 반영하여 최근 UNECE(유엔 유럽경제 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고자 PPP 사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PIERS(Public-Private Partnerships(PPP) and Infrastructure Evaluation and Rating System)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플랫폼이다. 이 평가시스템은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사회적·환경적 영향,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프로젝트의 SDGs 기여도를 측정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PPP의 평가항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PPP의 평가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접근성과 형평성(Access and Equity)이다. 접근성은 주요 공공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평성은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둘째, 경제적 효과와 재정의 지속가능성(Economic Effectiveness and Fiscal Sustainability)이다. 이 항목은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프로젝트의 기여도를 평가하며, 더 나아가 다른 조달 방식과 비교해 PPP 방식을 선택한 타당성까지 포함한다. 셋째,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이다. 이는 지구 환경 보호와 보전을 목표로 하며,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대처하는 행위는 SDGs의 성공적 이행에 필수 요소로 간주된다. 넷째, 확장가능성(Replicability)이다. 이는 국제적인 모범 사례와 SDGs를 준수한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 개발의 선례로 활용되도록 실증 효과를 제공하는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의 참여(Stakeholder Engagement)이다. 이해관계자에는 개인, 법인, 비정부기구(NGO), 지역사회, 여성, 취약계층 등이 포함되며, PPP의 전 과정에서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 요소로 평가된다.

위의 평가항목은 기존의 민간협력사업 방식을 결정할 때 활용된 VFM(Value for Money) test의 기준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간 진행된 PPP 사업의 평가항목은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발생하는 재정의 절감, 위험 이전 등을 수치로 제시하여 해당 사업의 경제적 이점을 평가하는 것에 강점이 있었던 반면, PIERS의 평가항목은 경제적 효율성도 포함되지만, 이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항목도 비중 있게 포함하고 있다.

## PIERS의 평가 방식

평가 방식에서도 전형적인 방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PIERS의 평가는 단순한 계산이나 ‘합격 또는 불합격’이 아닌, 사용자가 해당 항목에 1~5 범위(5점척도)로 답변하도록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최종적으로 5가지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백분율로 제시하여 해당 프로젝트가 SDGs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정도를 표시한다. 이에 따라 인프라 프로젝트가 UN이 제시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측정하고, 사회 발전, 경제 번영, 환경 보전, 평화 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즉, ‘SDGs를 위한 PPP’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VfMOI 아닌 VfP(Value for People 또는 Value for the Planet)로 전환

PPP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환경 보호, 사회적 형평성 증진에 기여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PPP가 개발협력의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와 기업에서 이를 시장 개척이나 해외 진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PPP 방식이 주로 도로와 철도 등 경제 인프라 분야에 집중되면서 단순한 자금 조달, 설계, 공사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구속성 원조(Tied Aid)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제 PPP는 경제적 가치(Value for Money)를 넘어 ‘사람을 위한 가치(Value for People)’와 ‘지구를 위한 가치(Value for the Planet)’를 실현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이 개발협력에서 변화하는 PPP 기조를 기반으로 수원국 지원을 강화한다면, 대한민국은 DAC 선진공여국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 2025년 세계건설시장 유망 섹터 전망 및 시사점



해외건설협회  
책임연구원 정 지 훈  
jhjung@icak.or.kr

지난 2024년, 우리 해외건설산업은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하에서도 371억 달러를 수주하며 2015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더불어 2020년부터 5년 연속 3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수주를 이어가며 선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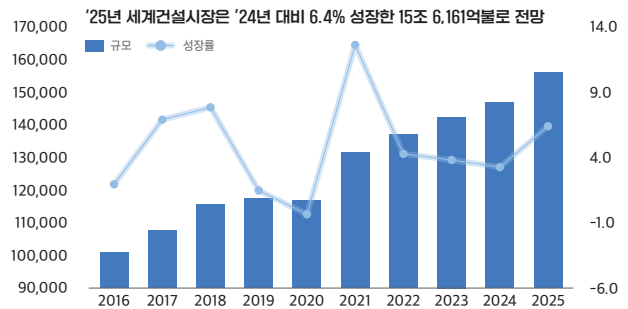
2025년 세계 건설시장은 각국의 공공 인프라 투자 정책을 비롯한 성장 요인에 힘입어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시장조사기업 IHS Markit(2024.10)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건설시장은 2024년 대비 6.4% 성장한 15조 6,161억 달러로 전망된다.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중동 건설시장은 11.8% 성장, 아프리카는 9.9% 성장이 기대된다. 이어 대형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발주가 기대되는 아시아(7.1%), 친환경에너지 분야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유럽(7.0%),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 발주가 예상되는 중남미(4.8%), 북미·태평양(3.2%) 순으로 성장이 전망된다. 단, 인건비·자재비·물류비 상승 등으로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 중동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건설시장 환경에서 우리 해외건설기업에 풍부한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 섹터가 눈에 띈다. 바로 ① 대형 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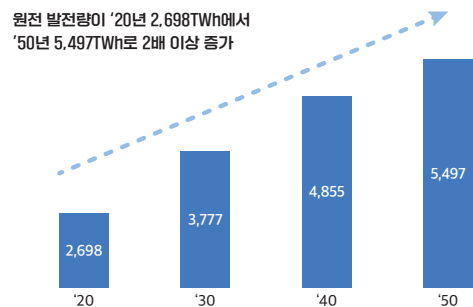
및 소형모듈원전, ② 친환경에너지 산업, ③ Oil & Gas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그림 1] 세계 건설시장 규모 전망(단위: 억 달러, %)



자료: IHS Markit.

[그림 2] 전 세계 원전 발전량 전망



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먼저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원전 시장부터 살펴본다. 친환경에너지로 전환(Energy Transition)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전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 중 원전이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30년 이상 된 원자로가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만큼 신규 원전 발주 및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등 다양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원전 발전량이 2020년 2,698 TWh에서 2050년 5,497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특히 폴란드, 인도, 튀르키예, 영국,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풍부한 사업 기회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해외건설업계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경험을 토대로 불가리아,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원전 사업에 참여하고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더불어 차세대 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에 동반 진출 및 협업하고자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Holtec International),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와 같은 주요 기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려는 친환경 프로젝트 발주가 급증하고 있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 세계 발전량은 2022년의 3배,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2배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화석연료를 활용한 발전은 2040년까지 95% 감소하며, 단계적으로 중단(phase out)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친환경에너지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한 정부 지출은 총 1조 3,440억 달러이며, 2020년 11월 기준 1,470억 달러 수준 이던 정부 지출액이 약 9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단, 이 시장에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총 1조 3,440억 달러 규모인 정부 지출 중 선진국 그룹의 지출은

1조 2,520억 달러이며 전체의 93.2%를 차지한다. 반면, 개발도상국 정부는 6.8%인 920억 달러를 친환경에너지 투자 지원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양극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EU,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세액공제 및 보조금 혜택을 확대하는 만큼 동 시장에서 수익성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분야별 정부 지출액을 살펴보면, 저탄소 전력 분야가 3,100억 달러로 규모가 가장 크며, 대체 교통수단 3,070억 달러, 고효율 에너지 건물 및 산업 2,640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어 연료 및 기술 혁신 1,820억 달러, 저탄소 차량 1,200억 달러, 전력망 860억 달러로 나타나며, 이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기회가 풍부해질 전망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급격히 위축된 글로벌 Oil & Gas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Oil & Gas 프로젝트 시장 규모는 3,997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향후 연평균 2.8% 성장하여 2028년 4,47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성장세를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아프리카 Oil & Gas 시장이 연평균 5%대로 성장하며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5.3% 성장하여 1,251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또 15% 점유율을 보이는 중동·아프리카는 5.1%씩 증가하며 2028년 71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LNG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는 북미 시장은 1,669억 달러로 Oil & Gas 최대 시장의 면모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 세계 건설시장에서는 다양한 사업 기회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심화하는 경쟁 속에서 그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인도, 튀르키예 기업을 비롯한

개발협력  
지식공유  
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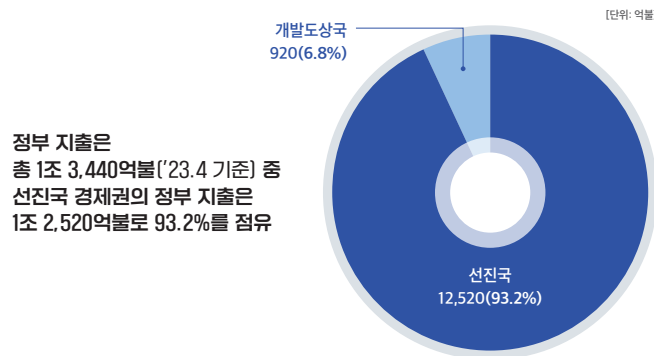
후발 주자들과 격차를 유지하도록 고난도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선진기업 및 현지 유망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더불어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제휴·지분 투자·M&A 등을 펼쳐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수익성 위주의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전략도 추진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중·저소득국 사업의 수주 기반을 마련 하도록 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으로 정책 자문·사업 발굴, 2) EDCF, EDPF를 활용한 인프라 지원 방안 더욱 절실하다. 더불어 주요 투자

개발형 사업 등 금융 경쟁력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3) ECA 금융 및 정책펀드(PIS, GIF) 등 복합금융 활성화 지원 방안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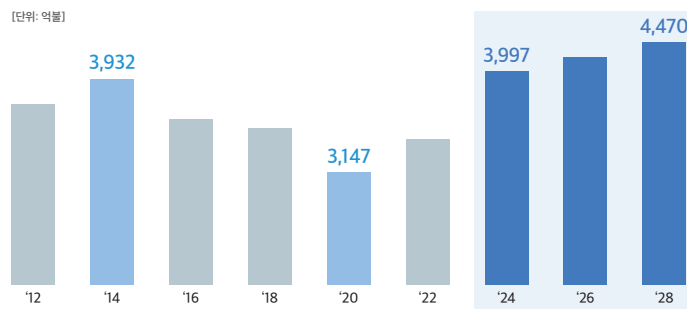
또 코로나 이후 인건비와 기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문제를 비롯한 수익성 저하 요인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리 해외건설이 이를 완화하는 신규 공급망 발굴과 시장 다변화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완화하고 수행 역량을 더 강화해 나간다면 역경을 딛고 더욱 견고하게 성장할 것이라 기대된다. ▣

[그림 3] 글로벌 친환경에너지 투자 지원을 위한 정부 지출



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그림 4] 글로벌 Oil & Gas 시장 전망



자료: Globaldata.

1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경험증진자금이며 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의 약자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정하는 ODA 적격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예: 인프라 사업 등)에 제공되는 금융임.  
 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증진하고자 지원하는 금융 상품을 의미함.  
 3 우리 해외건설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조성한 펀드를 의미함. PIS는 Plant, Infrastructure, Smart City의 약자이며, GIF는 Global Infra Fund의 약자임.



## 튀르키예: 수입대체산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2팀 윤근영  
yoonky3429@kdi.re.kr

### ● 들어가며

튀르키예 중소기업진흥청(이하 KOSGEB)과 협력하고 있는 2024/25 튀르키예 KSP 사업은 ‘튀르키예 수입대체 산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주제로 하여, (1)중소기업 관련 정책 현황 리뷰, (2)중소기업의 수입대체 상품 생산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3)중소기업 R&D,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현황, 그리고 (4)중간재 산업 육성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업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자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세부주제를 비롯한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을 모두 포괄하는 ‘튀르키예 수입대체산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대주제의 각 요소를 살펴보며 2024/25 튀르키예 KSP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 ● “튀르키예” 중소기업청과 KSP 사업

오스만 제국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교역의 허브로서 오랜 기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오늘날에도 유라시아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튀르키예는, 한국에서는 6.25 전쟁 참전을 계기로 ‘형제 국가’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1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본 터키 경제의 발전 전략'(2005년, 국가기획원), '터키의 국가 기술 및 혁신능력 모델 개발'(2008년, 기술개발재단), '터키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2012년, 생산성본부, KOSGEB), '한-터키 FTA 활용 정책 및 터키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활성화'(2013년, 경제부, KOSGEB), '터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육성, 녹색성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2014/15년, 경제부, KOSGEB),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전략'(2015/16년, KOSGEB)

한편, 튀르키예와 KDI는 2005년부터 KSP 사업을 통해 협력해왔으며, 올해 사업은 튀르키예와 일곱 번째 협력 사업이자, KOSGEB과는 다섯 번째 협력 사업이다<sup>1)</sup>. 튀르키예는 2015년 직후 튀르키예 내부 정세와 연이은 자연 재해로 지속적인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2022년 주 튀르키예 한국 대사관을 통해 협력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KDI와 사업을 공동 기획하였다. 이에 따라 2024/25년 KSP 사업은 약 10년 만에 재개된 협력 사업으로, 양국이 공동 기획·발굴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 ● 튀르키예는 왜 “수입대체산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가?

수입대체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SI)란 해외 수입을 줄이고 국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1950~1970년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선택한 정책으로, 국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미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로 ISI 전략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 세계화 축소보다는 경제적 회복력과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sup>2)</sup>되고 있으며, 이는 튀르키예 중기 경제개발계획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sup>3)</sup>.

그렇다면 튀르키예에서 수입대체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튀르키예는 EU라는 거대한 수출시장과 내수시장,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에서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인해 자체적인 생산 역량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튀르키예는 ‘제12차 경제개발계획(2024~2028)’을 통해 ‘안정적이고 강력하며 풍요로운 튀르키예’를 비전으로 설정, 경쟁력 있는 생산과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등 주요 제조산업을 집중 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중간재 산업의 발전을 통한 수입 대체와 생산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 중간재를 수입·가공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국내 가치사슬(Value Chain)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튀르키예에서 중간재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수입대체 전략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 ● 튀르키예 산업 경쟁력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성

튀르키예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71%를 담당하는 핵심 경제주체이다

2 수입대체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SI) 전략은 해외 수입을 줄이고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려는 정책이다. 1950년대 중반부터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한 경제전략으로 자리 잡았으나, 1960년대 후반에는 과도한 보호주의로 인해 비효율적인 산업구조가 형성되고 수출 확대가 저해되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한 수출 촉진 전략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1990년대부터 2008년까지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 시대를 거치며 경제 통합이 심화되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와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며 세계 경제는 ‘슬로발라이제이션(Slowbalization)’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보호주의 강화와 공급망 불안정성 심화로 ISI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는 세계화 축소보다는 경제적 회복력과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World Bank, 2020).

3 제11차 경제개발계획(2019~2023)이 생산 효율성 증대와 기술 확보 및 혁신 등,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주요 목표로 두었다면, 제12차 경제개발계획(2024~2028)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물기안정 등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KOTRA, 2023).

(KOSGEB, 2024). 자동차, 기계, 전자, 섬유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지원 정책 마련이 긴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KOSGEB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부터 디지털 공급업체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매칭 성공 사례, 국산화된(수입대체된) 제품 정보 등을 시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 간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 및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4/25 튀르키예 KSP 사업은 튀르키예 중소기업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튀르키예와 한국은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산업구조와 주력 산업, 생산성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튀르키예 정책환경에 적합한 실질적인 정책제언을 위해서는, 분석 대상 사업을 튀르키예 주력 산업으로 특정하여 장애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과의 차이점을 식별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 ● 나가며

KSP 사업을 통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가 친근함과 유대감을 보이지만, 튀르키예는 오랜 기간 지속되지 못했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재개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출장단을 ‘형제’라고 부르는 모습은 실제 형제와 다름없는 정서를 느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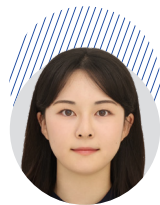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일정 중 방문한 주 튀르키예 한국 대사관에서는 한국과 튀르키예가 역사적·문화적으로 강한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양국 간 경제협력 사업이 많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KSP 사업이 이러한 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대사관 차원에서도 KSP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각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튀르키예와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서는 ‘형제 국가’라는 유대관계를 넘어선 실질적인 경제협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금번 KSP 사업이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형제 국가’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발전하는 데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





## 페루: 모든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KDI CID 정책자문1팀  
연구원 박 미 서  
miseopark@kdi.re.kr

### ●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바라본 원산지관리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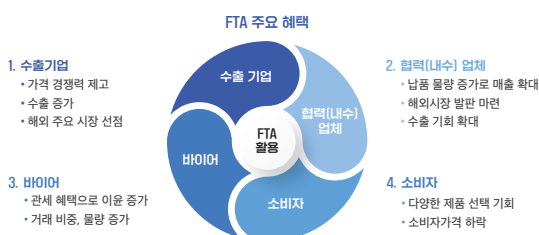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물품은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 한국과 중국은 중남미에서 수입한 광물을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미국과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커피 원두로 만든 커피를 소비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은 교통 및 운송수단의 발전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도 크게 이바지했다. FTA는 수출입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체결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원활한 교역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무역량 증대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드러난다(그림 1).

FTA 체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특혜관세율 제공이다. 수출기업은 특혜관세로 다양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 수입기업은 비교우위를 가진 기업이 생산한 고품질 제품을 국내 생산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고, 소비자는 이러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특혜를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FTA를 체결하고 발효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어떤 FTA를 활용해야 최대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별하여(한 국가와 FTA가 복수로 체결된 경우) 가장 적합한 FTA를 선택하는 것이다.<sup>1)</sup> 이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후 이를 검증하는 일(이하 원산지관리)이다.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 FTA-PASS)으로 원산지관리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기업은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원산지판정, 문서송수신, 문서보관 등 업무를 처리하고, 편리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

[그림 1] FTA 주요 혜택



자료: 조성대, "한국의 FTA 발자취와 보호주의의 파고 속 FTA 활용", 월간통상 2024년 Vol.140 30p.

1 FTA 특혜세율이 일반세율보다 낮아야만 FTA 활용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 2024/25년 페루 KSP 추진 현황

페루 정부와는 ‘페루 원산지증명·관세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2021/22년 KSP 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페루 통상관광부(MINCETUR)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의 FTA-PASS 사례를 학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페루의 전자무역시스템인 VUCE<sup>2)</sup>를 개선하고 FTA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원산지관리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2022년 KSP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사업은 2024/25년 KSP로 최종 선정되어 VUCE 내 한국형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격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4/25년 사업 착수 전, MINCETUR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시점 이후 변화된 VUCE 현황과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표 1>과 같이 대주제와 세부주제를 확정하였다.

<표 1> 2024/25 페루 KSP 대주제 및 세부주제

구분	주제명
대주제	페루 중소기업 특혜 원산지증명 시스템 구축 및 역량 강화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Peruvian SMEs in Certification of Origin)
세부 주제 1	VUCE에 통합된 원산지 판정·관리시스템 검토 및 개선 방안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the Integrated Origin Determination and Management System in VUCE)
세부 주제 2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Suggesting Education Program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FTA by Peruvian SMEs)
세부 주제 3	글로벌 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페루 원산지관리 시스템 발전 방향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Origin Management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Changing Trade Paradigm)

2024년 9월, 공개 입찰로 선정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의 협의를 토대로 ① VUCE 개선을 위한 FTA-KOREA<sup>3)</sup>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② FTA 활용률을 제고하는 산업별·협정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또 ③ 페루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정부 주도로 지원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였다.

이후 10월 3일에는 페루 리마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공식 착수를 알렸다. 협력 부처인 MINCETUR,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페루 공공기관의 관계자 약 2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업 및 연구 추진계획을 소개하였다. 이후 현지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정합성 있는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연구 주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현지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올해 1월 수행기관 주도로 세부실태조사를 수행해 주제와 연관된 페루 민관학연 관계자를 면담하여 현지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추가 정보를 수집하였다. 현재 KTNET 연구진은 MINCETUR와 현지 전문가의 협력을 바탕으로 페루의 현황을 면밀히 반영한 연구를 진척하는 과정에 있다.

[그림 2] 2024/25 페루 KSP 착수보고회



자료: 필자 제공.

2 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의 약자이며, 대외무역 및 국제운송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국가 간 상품무역과 관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싱글윈도시스템을 말한다.

3 무역서류의 온라인 거래를 위한 국가전자무역기반시설이자 디지털무역 물류플랫폼인 uTradeHub의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지칭한다.

## ● 페루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원산지 관리시스템 개선 및 역량 강화 방안

페루 MINCETUR와 관세청이 집계한 FTA 활용률<sup>4)</sup>(2023) 데이터에 따르면, 페루는 90.8%로 높은 FTA 활용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FTA 활용률이 높다는 사실이 반드시 정부가 제공하는 원산지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거나, 수출기업의 FTA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페루는 광물을 주요 수출 품목으로 하는 국가이다. 특히, 가공 단계를 거치지 않는 광물 수출은 원산지 규정 충족이 비교적 용이하며, 광물의 대규모 거래 구조상 수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FTA 수출 활용률이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크다.

페루 정부는 6,270만 불 규모로 IDB 차관을 지원받아 기존의 VUCE 1.0을 VUCE 2.0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VUCE 2.0 계획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와 관련된 계획(Componente Certificado de Origen 2.0)도 포함되어 있다. MINCETUR는 나름 효과적인 원산지관리 체계를 갖추고 운영해왔지만, VUCE 내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발급<sup>5)</sup>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하다. 또 산업별·협정별 특화된 전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도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FTA-KOREA는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특혜가 가장 큰 FTA 협정을 추천하고, 자동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능을 이용해 편리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또 전자적으로 교환된 문서를 저장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원산지 증명(확인)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주도로 전문 기관들이 세분화된 FTA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공급망을 중심으로 CSDDD(공급망지속가능성실사지침) 등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응하는 전략을 다각도로 수립하고 있다.

KSP 연구팀은 2025년 3분기까지 초청 연수, 현지 방문, 자문평가회의를 거쳐 정책자문 보고서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KSP 사업에서 한국 FTA-KOREA와 페루 VUCE 시스템 기능을 비교분석해 자율발급을 포함한 VUCE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미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산업별, 협정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페루 정부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도록 원산지증명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페루 원산지관리시스템이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

[그림 3] 2024/25 페루 KSP 실태조사



출처: 저자제공

[그림 4] 2024/25 페루 KSP 고위급회의



자료: 저자제공.

4 FTA 활용률은 FTA 대상 품목의 전체 거래액 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의 수출입 비중을 거래액을 활용하여 계산한 지표이며, 수출기업이 받는 혜택은 FTA 수출 활용률로, 수입기업이 받는 혜택은 FTA 수입 활용률로 나타낸다.

5 FTA 협정별 상이하나, 보통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① 관세당국 등이 발급하는 기관발급, ②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하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되며,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허용하기도 한다. 또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정한 수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인증수출자발급제도)가 존재한다.

## 개발도상국 개발금융 역량강화체계화 및 지식공유 고도화 방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위원 김 대 응  
dykim@kdi.re.kr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이 진 이  
2jelee@kdi.re.kr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 인프라 구축과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발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현지 개발금융기관이 부재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사업은 경제 규모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또한 자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책 자문 이후 후속 사업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KSP의 고도화와 후속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국의 인프라 개발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 지원과 자원 조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개발금융 정책 대안과 지원 모델을 분석하고, 협력 대상국 개발금융기관과의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개발협력사업과 후속 사업 연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폭넓게 분석하고, 개발금융 관련

주요 현안과 의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개발금융 지식공유사업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개발협력사업의 금융 지원 및 자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개발금융 지원과 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이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발금융 지원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금융의 유연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개발금융은 재정적 한계, 경험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개별 국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과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다자개발은행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술 자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다자개발은행의 경영 환경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자원 조달 측면에서 혁신적인 자원 마련을 위한 개발금융의 다변화가 절실하다. 혼합금융은 민간 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개발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금융 기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혼합금융은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실용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재의 자금 조달 수준은 여전히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막대한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자금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셋째, 개발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개발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심각하게 부족하며, OECD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기 대응 재원 추가 확보와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재원 확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금융기관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국제사회 내 개발재원 확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넷째, 개발금융의 지원 효과성은 소득 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되어야 하며, 그 효과성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개발금융 지원이 투자와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론적 모형을 도출한 후 동태적 패널 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개발금융 지원이 투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개발금융 지원의 효과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중소득국에 대한 개발금융 지원이 투자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개발금융 지원을 경제 수준에 맞추어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성장 측면에서는 저소득국에 대한 개발금융 지원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공여국의 공적 자금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경제 성장에 더 유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주요 선진국의 개발금융 지원 전략과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개발금융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대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개발금융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개발금융기관의 신규 설립이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유의미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정책 제언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개발금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자국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기술 및 지식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정책 역량과 거버넌스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발 지원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수원국 정부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혼합금융 기법을 활용한 개발금융의 활성화와 지식공유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후속 사업 지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적 운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식공유사업을 패키지형 모델로 전환하며, 네트워킹과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온두라스: 출장소회 서면 인터뷰



정책평가연구원  
최희진  
chj@perikorea.org



YKSP 8기  
이건무  
lgmoo2002@gmail.com



### 이번 24/25 온두라스 1 KSP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희진** 이번 사업은 온두라스 정부의 복지전달체계를 전산화하고 디지털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을 갖추고 시민, 취약계층의 복지 접근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행복e음, 복지로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전산화 및 디지털 시스템 도입 경험이 풍부하여 관련 노하우를 온두라스 정부에 전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무** 저는 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YKSP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종사함으로써 제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 출장 다녀오시기 전 온두라스는 어떤 국가로 생각하였으며, 다녀오신 후 생각이 바뀌었나요?

**최희진** 솔직히 위험하고 빈곤한 국가라는 인식이 컸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주민등록체계, 공공 포털 등 복지



관련하여 이미 갖추었거나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많았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보다 더 잘 되어있는 시스템도 있어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건무** 온두라스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방문하지 못하는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렘지만, 연구진 분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혹시 민폐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연구진 분들께서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대학생으로서는 흔히 접하기 어려운, 세계 큰 자산이 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이번 출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최희진** 숙소 로비에서 온두라스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에서 온 저희를 신기해하며 자신들의 옷에 한글로 자신의 이름, 좋아하는 축구선수 이름 등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는 않았지만 해맑게 웃으며 저희에게 다가오고 헤어질 때는 꼭 안아주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한 웃음이 납니다.

**이건무** 온두라스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차관은 물론이고 가장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전부 다 바뀐다는 사실을 현지 부처 직원분들께 들었던 것이 가장 충격적



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온두라스가 지속가능하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이 사업은 다음 정권으로 바뀌어도 무사히 실행까지 가능할지 걱정 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으며, 현재 담당하는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최희진** 역시 복지는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온두라스에 대해 한국에서 몇 달간 탐색한 것보다 이번 출장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다른 연구를 수행할 때도 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고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무** 이번 출장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온두라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아가 제가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롭고 신기한 경험들과 연구진 분들의 좋은 말씀을 들으며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3차 출장과 남은 YKSP 활동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공대생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더 깊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

## 행사

## KDI-ADBİ 공동 글로벌포럼: 글로벌 공급망과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난 2024년 12월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가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및 태평양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글로벌 공급망”을 주제로 KDI-ADBİ 글로벌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팬데믹, 기후변화, 지정학적 갈등으로 심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관련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주요 쟁점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행사는 현장 참석자 70여 명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KDI, ADB, ADBİ, SEACEN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무원,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기조연설에서 기무라 후쿠나리 JETRO 아시아경제 연구소장은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며, 지속가능한 무역 체제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공급망 회복력과 디지털화, 식량안보, 녹색에너지 전환과 핵심광물 공급망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급망 회복력과 디지털화, 개발협력의 역할을 다루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이 농업 공급망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으며,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별세션으로는 ADBI-ADB-KDI가 공동으로 출판한 “Beyond Boundaries: Navigating the Digital Landscape for

a Green and Inclusive Future” 연구 보고서 출판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기술이 기후변화 대응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에서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ADBI와 KDI는 앞으로도 공동 연구와 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할 계획이다. 7

- 일 자** → 2024년 12월 17일(화)
- 시 간** → 09:30 ~ 17:00
- 장 소** → 일본 도쿄 /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 주 최** → 한국개발연구원,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QR

시간	프로그램
09:30-09:45	개회식
09:45-10:15	<b>기조연설</b> 아태지역 개발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
10:40-11:50	<b>세션 1</b> 글로벌 공급망과 개발 협력
11:50-12:30	<b>특별세션</b> “Beyond Boundaries: Navigating the Digital Landscape for a Green and Inclusive Future” 출판 세미나
14:00-15:20	<b>세션 2</b> 글로벌 공급망과 식량안보
15:40-16:50	<b>세션 3</b> 녹색에너지 전환, 핵심 광물과 글로벌 공급망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요 연구 및 협력 실적



## 2024년도 국제개발협력연구

#	과제명	주요내용
<b>I. 개발협력 정책연구</b>		
1	개발도상국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지식공유사업의 역할 및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부문별로 산업기술혁신 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li> <li>■ 한국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경제상황과 성장단계에 맞게 자생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산업기술혁신 표준모델(K-Innovation)”구축</li> </ul>
2	뉴노멀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환경·에너지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개도국의 정책 분석</li> <li>■ 선진국-개도국간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li> <li>■ 선진국-개도국간 기후금융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li> <li>■ 에너지 전환의 효과성 분석 : 한국의 경험</li> <li>■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청정에너지 · 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 분야 협력방안</li> </ul>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술협력 역할과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배경 및 주요국의 전략 분석</li> <li>■ 한국의 공급망 구조 및 노출도 분석</li> <li>■ 핵심광물 확보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협력 관련 시사점 도출</li> <li>■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협력의 역할 및 방향성 모색</li> </ul>
<b>II. 한국발전경험 체계화 연구</b>		
4	중진국 함정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지식공유사업에의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이 중소득국 단계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경쟁, 기술혁신, 고등교육)을 당시의 정책적 과제와 시행착오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한 시사점 도출</li> </ul>
5	개발금융 경험 체계화 및 지식공유 고도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금융 관련 최근 동향 및 주요 의제</li> <li>■ 선진국의 개발금융 파트너십과 지원 전략</li> <li>■ 개발금융기관의 개발도상국 지원 효과</li> <li>■ 개발도상국의 개발금융기관 역량강화 체계화 방안</li> <li>■ 개발금융을 활용한 지식공유 고도화 전략</li> </ul>
<b>III. 개발협력성과평가 연구</b>		
6	국제개발협력의 유형별 성과지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선진공여국 및 공여기관 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검토, KSP 사업에의 시사점 도출, 평가의 디지털 전환 방안 모색</li> <li>■ 지식기반 개발협력 평가체계 구축 및 사례 분석</li> </ul>
<b>IV. 지역·국가 심층연구</b>		
7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SP 사례 기반을 기반으로 협력국 및 분야를 선정하여 △정책·제도 현황 분석, △정책·제도 협력 사례 조사, △정책·사업 시사점 도출 및 제시</li> </ul> <p><small>*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말레이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페루 보건분야 디지털 전환, 중남미 국가 순환경제 전환 등</small></p>
8	디지털 무역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무역을 통한 개발(Digital Trade for Development) 관련 국제 논의 및 도전과제 분석</li> <li>■ 디지털무역 협정 분석 및 협력의제 유형화 및 체계화</li> <li>■ 디지털무역 관련 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조사</li> <li>■ 디지털무역 원활화 및 개발도상국 디지털무역 발전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과제와 추진방향 제시</li> </ul>



## 국제협력과 지식공유(Sharing Knowledge, Sharing the Future) (최근 3년)

연도	세부 내용
2024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4: 복합위기의 해결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금융 분야 국제개발협력 개발효과성 증진 방안: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금융규제 샌드박스 KSP 사례를 중심으로</li> <li>■ 말레이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li> <li>■ 페루 보건 분야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li> <li>■ 우루과이 플라스틱 순환경제</li> </ul>
2023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3: 협력국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란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정책환경을 중심으로</li> <li>■ 불가리아 연구개발 현황과 시사점: 소피아테크파크 산학연 협력사례를 중심으로</li> <li>■ 세르비아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혁신기술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li> <li>■ 신용보증제도 사업 기획 시사점: 베트남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li> </ul>
2022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2: 뉴노멀시대의 스마트정책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대응 ■ 행정 ■ 재정 ■ 농업 ■ 생산 ■ 교육 ■ 헬스케어</li> </ul>



## 국제협력사업

협력기관	연도	사업명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ADB)	2023	■ Beyond Boundaries: Navigating the Digital Landscape for a Green and Inclusive Future
아시아개발은행(ADB)	2021	■ 스리랑카 국가개발계획 지원
아시아생산성기구(APO)	2024	■ 스리랑카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2024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5
	2023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4
	2022	■ 파키스탄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2022	■ 중고소득국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전환에 대한 정책연구
	2022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3
	2021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2
	2020	■ 베트남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2020	■ 라오스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세계은행(WB)	2021	■ COVID-19의 외국인고용허가제(EPS)에 대한 영향
	2019	■ 노동시장 수요변화에 따른 숙련도 제고 정책연구사업
	2019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3차(카메룬, 서부발칸)
	2018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2차(10개국 개별 사업 및 성장 모형, 공기업 개혁 연구)
	2017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1차(8개국 개별 사업 및 거시경제, 포괄적 성장 연구)
미주개발은행(IDB)	2021	■ IDB Invest 협력사업: 한국의 디지털 전환 및 생태계 연구
	2020	■ 라틴아메리카와의 한국 인프라 서비스 지식공유 및 공동연구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2022	■ 이집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연수 · 연구
	2018	■ EBRD-KDI 공동 민관협력(PPP) 지식공유 콘텐츠 개발사업
유엔개발계획(UNDP)	2017	■ KDI-UNDP 에티오피아 국가계획위원회(NPC) 15개년계획 정책자문 사업
적도기니 재정경제기획부	2019	■ 적도기니 국가개발계획 자문사업
아부다비 개발기금(ADFD)	2017	■ 아랍에미리트 ADFD 수출금융프로그램 타당성조사 사업



## 국제 행사



연도	협력기관	행사명 및 내용
2024	세계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I-세계은행 녹색성장세미나 일시/장소: 2024년 2월 28일 / 워싱턴D.C. 주제: Green Transition Strategy, Green Transition Financing, Carbon Pricing 등</li> </ul>
	브루킹스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I-Brookings Joint Seminar 일시/장소: 2024년 10월 22일 / 워싱턴D.C. 주제: Digital Technology, Inequality, and Global Economic Convergence</li> </ul>
	A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2024년 12월 17일(화) / 동경 주제: 글로벌 공급망과 지속가능발전</li> </ul>
2023	브루킹스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I-Brookings Joint Seminar 일시/장소: 2023년 4월 11일 / 워싱턴D.C. 주제: Productivity in a Time of Change</li> </ul>
	A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DB 연차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 일시/장소: 2023년 5월 2일 / 인천 송도 주제: 아시아 복합위기 대응 방안, 글로벌 공급망개편과 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 코로나 19 이후 재정관리체계 등</li> </ul>
	A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DB 연차총회 부대행사“KDI-ADB 공동세미나: 디지털, 기후, 그리고 회복력” 일시/장소: 2023년 5월 4일 / 인천 송도 주제: 디지털 전환과 기후 효과</li> </ul>
	세계은행 TDL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KDI-WB TDLC 공동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2023년 11월 17일 / 인천 송도 주제: 개발도상국 발전 제약요소 및 기회 분석, 도시 정책, 지식기반 발전 등</li> </ul>
20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KDI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2022년 10월 21일 / 서울 주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정책 사례와 협력</li> </ul>
20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KDI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11월 19일(목) 14:00~16:00 / 서울 주제: 개발을 위한 혁신 *기업과 혁신, 도시와 혁신, 기술과 혁신</li> </ul>

# KDI CID 지식공유브리프 발간지 목록

2024년 특별호 	<p><b>이슈톡</b> 기후위기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논의 동향 / 강성진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미국 대선 후 산업·통상정책 / 박지형 디지털 격차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동향 / 김서용</p> <p><b>동향 분석</b>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한선이 </p> <p><b>KSP 포커스</b> [2023/24 불가리아 KSP] 미래에 대응하는 불가리아 건설사업의 도전과 기회 / 김지원</p> <p><b>CID 연구포커스</b>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 방호경 신용보증제도 사업 기획 시사점: 베트남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 최다인, 하지유</p>
2024년 3호 	<p><b>이슈톡</b>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건의로 패러다임 변화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 최희주 유럽 공급망 실사지침과 우리 기업의 대응 / 오범택 </p> <p><b>동향 분석</b> 한국 주택정책의 성과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 권혁신 </p> <p>개발효과성 담론에 대한 한국의 기여: GPEDC와 부산포럼을 중심으로 / 송지선</p> <p><b>KSP 포커스</b> 헝가리 EIPP: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 최효정, 안치영</p> <p><b>CID 연구포커스</b> 불가리아 연구개발 현황과 시사점: 소피아테크파크 산학연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 남보라, 김하아람</p>
2024년 2호 	<p><b>이슈톡</b> 기후 문제에 대한 개도국의 시각 / 정홍상 </p> <p>디지털헬스케어의 중요성 및 지식공유의 의미 / 강재현</p> <p><b>동향 분석</b> 국내 수소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 / 이슬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의 지식화와 수도이전 국제협력 추진방안 / 방설아 </p> <p><b>KSP 포커스</b> [2023/24 칠레 KSP] 병원 대기 끝에 죽음이 아닌,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 홍기현</p> <p><b>CID 연구포커스</b>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ESG,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역할 및 정책과제 / 김대용, 황서영</p>
2024년 1호 	<p><b>이슈톡</b> ESG와 국제개발협력 / 정무경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 / 정지훈 </p> <p><b>동향 분석</b> 순환경제로의 전환, EU는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나? / 박상우 중동정세와 향후 전망 / 강문수 </p> <p><b>KSP 포커스</b> 리투아니아와 문화창의산업 (Cultural &amp; Creative Industries) / 안치영</p> <p><b>CID 연구포커스</b> 아프리카 지역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국제개발협력 / 우혜영, 이소희</p>

<p>2023년 특별호</p> <p></p>	<p>이슈톡 2023년 지식공유브리프 특별호를 기획하며 / 김정욱</p> <p>2023년 국제개발협력을 되돌아보며 / 김은주</p> <p>2024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발금융의 역할 / 권율           기술협력 ODA,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 방호경 · 이소희</p> <p>동향 분석 2023년 동남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전망 / 이요한           2023년 아프리카 ODA의 주요 특징 및 전망 / 김은경           2023년 중남미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과 전망 / 정상희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일본의 개발협력 과제와 새로운 대응:          2023년 개발협력대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김은지 </p> <p>KSP 포커스 페루 경제특구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로드맵 수립 / 윤근영</p> <p>CID 연구포커스 탈탄소 기술 품목의 무역저해요인 분석 및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시사점 / 방호경</p>
<p>2023년 3호</p> <p></p>	<p>이슈톡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개발협력 전략 / 김연규          해외건설기업 진출현황 및 시사점 / 정창구</p> <p>동향 분석 국제협력 플랫폼, KSP의 의미 / 이미연          유럽연합의 개발도상국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 오정은 </p> <p>KSP 포커스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KSP 사업 선정의 현황과 과제 / 이세훈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현주소와 단기적 개선 방안 / 서규혁</p> <p>CID 연구포커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디지털 편 / 이진이</p>
<p>2023년 2호</p> <p></p>	<p>이슈톡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사후관리가 왜 중요한가? / 안충영           ESG 연계 개발협력과 민간기업의 참여 / 이준희 </p> <p>동향 분석 기술협력사업의 PDM 활용 개선방안: 지식공유사업을 중심으로 / 강경재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과 스마트 헬스케어 / 김준</p> <p>KSP 포커스 KSP 주제분류체계 개편 배경 및 주요내용 / 노보배          [우즈베키스탄 KSP+]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 한재현</p> <p>CID 연구포커스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확대를 통한 국내외 청년의 글로벌 기회 확대 / 우혜영</p>
<p>2023년 1호</p> <p></p>	<p>이슈톡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 임호열           글로벌 불황에 대한 안정망, 국제개발협력 / 성한경</p> <p>동향 분석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개발협력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 / 김은주           스마트 생산 분야의 개도국 정책자문 수요와 정책 제언 방향 / 이재광           COP 27 손실과 피해의 주요 합의사항 / 황금물결</p> <p>KSP 포커스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 육성 / 유성희</p> <p>CID 연구포커스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를 위한 정책과제 / 김대용, 이소희</p>

<p>2022년 3호</p> <p></p>	<p><b>이슈톡</b>      개도국의 혁신투자는 다다익선인가? / 정성철  우리나라 '정책자문 ODA 사업'의 과제와 방향성 / 김성규 </p> <p><b>동향 분석</b>      개발협력평가와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가능성과 도전과제 / 홍문숙 아프리카의 정당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효과적 재정지원 방안 / 김유나, 홍은선</p> <p><b>CID 연구포커스</b>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 김정욱, 윤지희 중미공동시장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중미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 방호경</p>
<p>2022년 2호</p> <p></p>	<p><b>이슈톡</b>      세계 식량 위기와 국제개발협력 / 이준원 포스트-코로나 세계에서의 KSP의 중요성 / 윤석현</p> <p><b>동향 분석</b>      COVID-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ODA / 김지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과 비시장 접근법 논의 동향 / 황금물결 </p> <p><b>KSP, EIPP 포커스</b>      [불가리아 KSP] 디지털 혁신산업단지로의 전환 전략 수립 / 한재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추진 배경 및 특징 / 김하아람</p> <p><b>CID 연구포커스</b>      연결성과 국제개발협력 / 홍성창</p> <p><b>YKSP 스토리/CID 소식</b>      YKSP, 그것이 알고 싶다 / 이태연</p>
<p>2022년 1호</p> <p></p>	<p><b>이슈톡</b>      국제개발협력의 본질과 한국 개발협력체계 발전방향 / 정혁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의 도래가 한국 개발협력에 던지는 함의와 과제 / 김양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법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으로의 전환 / 장은혜</p> <p><b>동향 분석</b>      KSP 고도화 전략과 지식공유사업법(가칭) / 홍성창, 김서영, 이미연 국제탄소시장과 ODA 활용 동향 / 김예림</p> <p><b>KSP, EIPP 포커스</b>      [페루 KSP] FTA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활용으로, 페루에게 전하는 한국의 경험 / 김지원 · 윤근영 [세르비아 KSP] 도시개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송지은</p> <p><b>CID 연구포커스</b>      2021 CID 국제개발협력 연구 / 우혜영</p>

 는 KDI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해당 게시판으로 연결,  의 경우 해당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됨.



##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식공유브리프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원고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원고료가 있습니다)

문의 김다오미 연구원(044-550-4276, kdom228@kdi.re.kr)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발행처** KDI 국제개발협력센터(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발행인**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편집장** 방호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전문위원

**편집위원** 김대용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 김민정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총괄

**편집간사** 김다오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연구원

**문의** 044-550-4276, 044-550-4280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